

해방 이후 제주 민속·생활문화 연구의 궤적과 전망

김유정 (제주대 강사, 제주문화연구소장)

I. 머리말-민속과 삼농(三農)

제주 문화가 한반도와 다르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섬이면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장소라는 점이다. 섬이라는 제주의 지리적 여건은 면적이 작아 생산력이 낮은 까닭에 고대부터 일본과 한반도와 교역과 예속이 동시에 있었고, 고려시대는 몽골의 지배 아래 일본 정벌 시 교두보로 활용하기도 좋다. 몽골의 제주도를 지정학적 중요 장소로 활용한 것은, 일본과 가까워 말의 공급이 수월하다는 점이다. 또 제주의 자연조건은 배를 만들 수 있는 원시림이 있었고, 언제라도 부족한 말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가 발달해 있다. 그리고 배와 말을 다룰 수 있는 노동력 확보가 수월한 때문이며, 이후에는 몽골의 패망 시 왕실의 도피처로도 생각한 적이 있었다.

둘째, 바다와 함께 생활하는 해양 생산문화가 있다는 점이다. 포작인과 잠녀의 생산문화가 면면히 내려오면서 신화, 설화, 굿, 어로 등 해양 풍속과 생활문화가 전해오고 있다.

셋째, 화산섬이 만든 풍토는 자연·목축·농업·습속 등이 전해오는데 이는 제주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이루는 일상의 구조가 되었다. 이 문화적 환경은 한반도 다른 지역의 생활문화와는 다른 인문·사회적 특징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제주의 문화적 특징은 한반도의 역사적 시간과 관련하여 북쪽의 길과 술한 저항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제주 사회의 문화적 성격으로 형성된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의 사회적 성격에 가장 중요한 동인(動因)은 아마도 예측성과 저항성이라는 이중성으로 말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주민들의 미래의 제주 역사를 맞게 되면서 종래의 문화적 정체성은 앞으로 점점 변하게 될 것이다. 점점 전통적인 선주민적(先住民的) 제주인에 대한 전통적 생활방식은 다른 형태의 습속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새롭게 고려해야 할 새로운 변화란 다름 아닌 인구증가와 그 구성원의 변화, 자본주의 심화라는 산업과 경제의 빠른 변화이다. 따라서 제주인에 대한 정체성도 다른 각도로 생각해야 할 지점에 이르렀는데 산업이 변하고 직종도 다양해졌으며, 이주민의 목적도 다르고, 또 해외 결혼 이민자 가정이 늘면서 전통적 생활, 마을, 공동체, 문화가 해체되거나 습합되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는 사회구성체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이 변하고 삶의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의 심화된 자본주의적 삶이 과거의 생활을 지시하던 민속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쓸 수 있는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민속의 대체·보완·혼용 용어로 생활사, 혹은 생활문화라고 부르고 있고, 민속을 연구하는 갈래도 세 가지 경향이 있는데 한국민속학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학적 민속학’, 1990년 창립된 한국역사민속학회의 ‘역사학적 민속학’, 1958년 출범 당시 민속학

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문화인류학회가 주도한 ‘인류학적 민속학’이 그것이다.

어쨌거나 민속이란 말 그대로, “생산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말이고, 바로 “사람들의 전반적 삶의 스타일인 풍속”과도 상통하는 말이지만 이 민속이라는 개념으로 현재의 삶을 대변하기에는 분명 역부족이고 회의적이며, 그것에 기댄 전통 또한 현실적으로 시대와 대중적 괴리가 있기 때문에 뒷 세대에겐 시원한 관점을 열어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과거 한국 민속학은 주로 전근대 이전 시대의 민속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즉 그 시대의 민속현상은 어떤 모습이었으며, 그것이 의미하는 원형적(原形的) 혹은 유형적 형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래서 민속학은 현재적인 학문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지향적인 학문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 그런데 한국 민속학은 해방 이후 남북 분단과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부침을 겪기도 했다. 그로 인해 아직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이론적·방법론적 형태를 온전하게 갖추지는 못했다.¹⁾

나아가 민속학자들의 이런 자기 비판적인 견해는 그간 한국 민속학의 위치와 정체성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이자 문제제기로서 지난 민속학의 역사적 궤적을 의식한 듯 이두현은 민속학을 넓은 의미의 인류학의 한 분야로 역사학·사회학을 학문적으로 통합하고 확장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민속학은 과거 과학, 즉, 역사 과학으로서 생활문화(민속)의 역사적 구명(究明)과 아울러 현재 과학, 즉 사회과학으로서 구조적, 기능적 연구의 양면을 지향하며 상호 보완할 때 생활문화의 충분한 사실적 구명과 과정적, 내면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며, 인류의 체질·사회·민족·문화를 연구하는 인류학의 한 분야로서 그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²⁾

지금의 현실에서 민속이라는 말을 들으면 금방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과거 민속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시풍속이 현실적으로 어느 만큼, 어떻게 존속되고 있는가를 보면 금방 이해가 간다. 세시풍속의 내용들은 지금의 시대와는 거꾸로 가는 농경 중심의 사회적 산물들이며, 농경사회와 깊게 연계된 생활의 습속들이다. 농경 사회에서 비롯된 다양한 민속들은 전자본주의 단계의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문화들로, 흔히 그것을 전통문화라고 하는데 사회성격이 농업 중심이 되고 농민, 농업, 농촌이 존재해야 그것의 전승이 가능한 것들이다.

원테전(溫鐵軍)이 주장하는 삼농(三農)은 농민, 농업, 농촌으로서 인류의 오래된 역사이고, 그리고 오래된 공동체로서, 또 오래 전승되는 문화를 지탱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체성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인류 출현 이후 인지혁명이 있었고, 그 결과 신석기 시대 농업혁명의 여파는 지금껏 우리를 농업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전자혁명의 시대에 보이지 않는 바탕에도 바로 농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래서 원테전은 “농부는 비즈니스 맨이 아니며, 농부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식량 주권을 지키는 데 복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누구나 농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농업은 역사이고, 문화이고, 교육이고, 또한 사회인 것이다.”³⁾ 원테전의 삼농운동은 세계화의 물결을 돌려내는 사회적 재생운동인 것이다. 농민, 농업, 농촌의 존재는 민속의 실체이고 근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 주영하, 김호, 「생활사 연구와 이규경」, 『19세기 조선, 생활과 사유의 변화를 엿보다』, 한국학 중앙연구원 편, 2005, 돌베개, p13.

2) 앞의 책, p14.

3) 원테전,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경계하라」, 『문명, 그 길을 묻다』, 이야기가 있는 집 2007, PP371~395.

II. 자본주의 일상과 생활문화4)

사람은 누구나 일상에서 삶을 산다.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 바로 일상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일상이란 필연적으로 모든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장소이다. 우리에게 일상이란 일과 놀이, 생노병사의 통과와 희노애락의 감정, 그리고 현존재로 살아가는 곳으로서 곧 경험적인 생활공간이 된다. 경험적인 생활공간인 일상은 사사로운 일과 사건이 일어나고 늘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삶의 반복적인 일들을 겪는 세계이다. 그럼에도 일상의 영역은 한 눈에 알 수 있을 만큼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모호하다. 상품사회인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에서는 농경사회와는 다른 가치들이 교환된다. 정확히 말해 생활문화는 일상세계이다. “일상세계란 본래, 생산, 교환, 소비의 미시적 순환고리들이 엮어진 구체적인 생활 국면을 형성하는 곳이다. 자본주의 지구화는 물리적 영토의 확장을 통해서 일단 관철되지만, 그 완결은 생활세계의 구석구석을 삼투함으로써 가능하다.”⁵⁾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전지구화는 지리적 확산으로만 설명하기 어렵고 일상세계에 파고드는 상품의 영역이 미시적으로 미시적으로 작동하는 초국적 자본의 침투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일상세계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자본주의 상품 경제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페르낭 브로델은 일상은 “변화하고 지속되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겨우 표시가 날까말까한 일이다. 신문의 잡다한 기사는 일상사가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일반성 혹은 구조가 되며, 사회의 각 층에 침투하여 영구히 반복되는 존재양식, 행동양식을 특징짓는 생활양식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일상생활이 학문의 대상으로 합법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의 구조 때문”이라고 브로델은 말한다.

일상의 내용은 시대의 사회구성체에 따라 다르다.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사회에서의 일상은 농사를 중심으로 생활상이 전개된다. 제주도와 같이 반농반어(半農半漁)라는 복합적인 일상도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전통의 변용을 얘기할 때 살피고자 하는 문화적 내용은 전근대 사회에서 전승된 전통문화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일상은 다시 세분하면 생존을 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과 여가, 의례를 행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이란 자기 생존과 가족을 부양하고 형성하는 생산을 목표로 하는 노동이다.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여가란 오늘날의 여가와 다른데 오늘날의 여가가 제도적으로 약속된 시간을 다양하게 누리는 것이라면, 농업사회에서 여가란 따로 개념이 없으며, 농한기와 같은 농업의 휴지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휴식이나 재생산을 위한 준비 시기냐가 판가름된다. 즉 농한기는 놀이를 즐기기도 하고 부족한 가정 경제를 위해 부업을 하거나 다음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일과 놀이가 분리되지 않고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하는 것이 농업사회의 특성상 여가라는 개념이 농업의 재생산을 위한 준비기간과 밀착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여가라는 개념은 오늘날 자본주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차 산업 중심의 사회에서는 여가라고 하는 ‘남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생산의 결과가 달라진다. 사실상 전근대의 여가는 자력(自力)으로 생활용품이나 농사에 관련된 재생산 도구들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된다. 대개의 일상의 생활용품을 자급자족해야 하는 데 농사 외에 남성과 여성의 일이 다시 주어진다.

전근대 사회의 일상에서 중요한 것은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의례는 관혼상제(冠婚喪祭)와 굿, 포제와 같이 개인과 가족, 마을공동체를 근간하여 사회적 질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관혼상제는 국가의 이념적 목표가 결합하게 되고, 굿이나 마을제는 개인의 생존과 마을의 안녕이라는 현실적 삶의 목적

4) 이 글은 2014년에 펴낸 제주문화원 『제주생활 100년』의 필자의 글을 참조했음을 밝힙니다.

5) 조명래, 「국가의 이중적 해체와 계급적 의미」, 『일상공간과 생활정치』, 한국공간환경연구회, , 도서출판 대운, 1995, P123.

을 지향하게 된다. 의례는 일상생활에서 종족이나 민족,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특성을 가장 잘 함유하고 있다. 의례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관련이 있지만 그 과정은 친족이나 마을 공동체라는 집단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문그 문화작 형식이 양식화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생활문화는 작게는 가족의 생활양식, 크게는 한 마을, 나아가 지역의 생활양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다양한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생활문화를 들여다보면, 최소단위인 개인의 생활문화로 시작하여 집단의 생활문화, 다시 제도적인 생활문화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문화는 그 가족구성원이 농업이나, 어업이나, 반농반어냐의 직업에 따라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로지르는 보편적인 생활문화는 마을, 지역의 공동체와 다시 결합한다. 즉 개인 의례의 근간에는 마을, 국가의 이념과 결합되기도 하고 그것에 저항하기도 하는 제도적인 생활문화는 개인과 집단의 생활문화와 충돌하거나 타협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유교와 무속의 관계처럼 생활문화는 남성문화와 여성문화라는 대척점으로서 유교(국가/남성)와 무속(반국가/여성)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는 양반 사대부 문화와 민중문화라는 대별적 구도를 갖는 생활문화가 있으며, 그리고 산업적으로는 농(農)·공(工)·상(商)의 각기 다른 생활문화가 있었다. 지역적으로는 육지의 팔도문화와 해양의 탐라문화라는 차이가 있다.

생활문화에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전통문화라고 한다. 적어도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생활문화, 관혼상제와 같은 제도문화, 굿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는 약 600년의 연속성을 갖다가 왕조가 멸망하면서 전승되던 전통문화는 서양에서 들어온 문화와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언제, 어디서나 문화투쟁은 존재하기 마련인데 시기마다 전통문화가 변형되었고, 오늘날은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변화를 겪고 있거나 해체되고 있다. 굿 문화 또한 조선시대, 구한말, 일제강점기, 새마을 운동 시기에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여성문화의 중심에 있지만 후기산업사회의 도래로 급격히 밀려나고 있다.

생활문화를 민속문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의 생활문화가 얼마나 전통에서 벗어나는 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반 퍼슨(C.A.van Peursen)의 말처럼 전통도 문화에 속한다. 그리고 전통은 규범과 관습, 규칙과 생활용품 등의 전승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은 불변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 행위의 다양성 속에 포섭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은 수용, 거부, 변형 등 인간의 능동적인 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는 항상 변화에 관한 이야기이자 기존 문화 패턴의 변형에 관한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정확히 전통으로서 생활문화를 구성하는 요인은 의례나 습속과 같은 행위전승(behavioral traditions), 유물이나 유적과 같은 물질전승(material traditions), 지역 특유의 언어전승(verbal traditions)이라는 요소가 성립돼야 전통적인 생활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생활문화의 이론적 구성 원리가 충족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것, 혹은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알렌 던데스(Alan Dundes)는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자기 전통의 가치를 전승의 여부로 판단한다. "민중(Folk)이라는 용어는 적어도 하나의 공통 요소(factors)를 공유한 어떤 집단의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문제는 공통작업이나 언어 또는 종교와 같이 그들을 연결시키는 요소(inking factors)가 무엇이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형성된 집단이든지 '자기들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전승(traditions)'을 가졌느냐에 달려있다."

Ⅲ. 문화 개념에 대한 재논의

사람들은 오늘날 문화라는 말이 서구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인식하는데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한다. 서구에

서는 문화를 대체로 문명과 동일시한다. 문화와 문명은 동의어 관계인데, 이들 두 관념은 저속하고 퇴행적이며 무지한 인간 상태라고 하는 야만과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문화는 종교, 예술, 철학, 과학, 정치학 등의 고차원적인 인간 정신활동의 표현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이해는 제국주의가 결합되면서,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라는 개념을 내포하는 ‘문화민족’과 미개한 문명이라는 비하된 개념인 ‘원시민족’이라는 차별을 낳았다. 이런 제국주의적인 문화의 개념은 이미 소멸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점차 문화는 사람과 각 민족의 삶의 전반적 표현이라는 인식으로 확장되었다. 인간은 사회를 형성하고 자연에 끊임없이 개입하면서 생활을 누린다. 일상생활 거의 전부가 문화다. 각종 삶의 의례와 죽음의 의례, 제사, 도구의 제작, 생산 활동, 축제, 주거, 놀이 등도 고차원적으로 생각했던 예술, 종교, 과학, 정치학과 같이 문화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문화는 시간이 갈수록 훨씬 역동적인 뜻으로 이해되었다. 예전에는 문화라는 단어는 명사로 이해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동사로 보게 되었다. 문화는 예술작품, 책, 생활도구 등의 문화유산의 집합이라는 인식을 넘어서서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인 모임, 회의, 레저, 유흥, 취미와 같이 다양한 행동양식들도 포함되었다.

결국 ‘문화는 학습된 행위, 문화는 인간 그 자체, 문화는 형성되는 것, 사회는 문화의 매개물’이라는 말은 문화개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제임스 디츠, 1995)

그렇다면 문화를 개념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문화라는 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는『키워드』에서, 문화라는 말인 ‘culture’의 전형(前形)은 라틴어 ‘cultura’이고, 어원은 라틴어 ‘colere’에서 온 것이다. 이 ‘colere’의 의미는 ‘거주하다, (논밭을)갈다, 지키다, 존경하며 숭배하다’로 확대되었다. 이후 이 의미들은 따로 파생명사가 되었는데, ‘거주하다’라는 의미는 경작민이라는 뜻의 라틴어 ‘colonus’를 거쳐 영어의 ‘colony(식민지)’로 발전했으며, ‘존경하며 숭배하다’는 라틴어 ‘cultus(예찬)’를 거쳐 영어 ‘cult(숭배)’가 되었다. 라틴어 ‘cultura’는 경작이나 돌봄이라는 ‘colere’의 의미를 취했다. ‘culture’의 초기 용법은 대부분 과정을 지칭하던 명사로서 작물이나 가축을 돌보는 일을 뜻했다. (……) ‘culture’라는 단어가 근대를 거치면서 크게 세 가지 용법으로 분류되었는데, 첫째, 지적, 정신적 미학적 발달의 전체적인 과정을 말하는 독립 추상명사로서 18세기부터 시작된 용법이 있고, 둘째, 어떤 국민, 시대, 집단, 또는 인간 전체의 특정한 생활양식을 가리키는 자립 명사로 쓰인 용법이 있다. 셋째, 지적, 특히 예술 활동의 실천이나 그로부터 탄생한 작품을 가리키는 자립 추상명사의 용법이 그것이다. 6)

일상에서 생성되는 생활문화라는 개념을 문화의 개념에 빚댄다면, 문화의 세 가지 용법 중 둘째 용법인 ‘어떤 국민, 시대, 집단, 또는 인간 전체의 특정한 생활양식’이라는 점에 무게를 뒤편 할 것이다.

보다 서구의 전통적인 문화 개념들을 살펴보면, 에드워드 타일러도 광범위한 인종지학적 의미로 받아들여 문화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한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전체”라고 정의하였다.7)

또, 인류학자 말리노프스키는 1931년 문화를 정의했는데, “물려받은 인위적 조형물, 상품, 기술적 공정, 사상, 습관, 가치를 포함한다고 광범위하게 정의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文化)라는 말을 자주 쓰지는 않았지만 간혹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 조선 중기의 문인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1527~1572)의 문집인 『고봉집(高峯集)』의 발문에 문화라는 말이 등장한다. 이 발문은 인조 7년(1629) 11월에 통정대부(通政大夫) 선산 부사(善山府使) 조찬한(趙縝韓)이 쓴 글이다.

6) 레이먼드 윌리엄스의『키워드』, 김성기 외 옮김, 2010, pp123~129.

7) 피터 버크,『문화사란 무엇인가』, 조한욱 옮김, 길, 2005, p59.

다행히 성조(聖祖:이성계가 용비(龍飛)하심에 힘입어 혼우(昏愚)함이 날로 열려서 나쁜 찌꺼기를 깨끗이 걸러 내고 문화를 널리 밝힌 뒤에야 차례로 오현(五賢)이 서로 계승해 나왔는데, 퇴도(退陶)에 이르러 비로소 완비되었다(幸賴聖祖龍飛, 昏開日舒, 湔滌滌滓, 炳溥文化, 然後迭有五賢之相承, 而至退陶始備焉.)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서(書)」 가운데 ‘홍원백에게 보냄’ 라는 글에도 문화라는 말을 볼 수 있다.

때마침 은산(殷山)의 수재(秀才)들을 만났는데 영공(令公)의 문화(文化)의 성대함과 풍류(風流)의 온자(蘊藉)함을 극구 찬양하였습니다(盛言令公文化之盛, 風流之蘊藉).

순조 때 저작인 『계산기정(蔚山紀程)』이라는 책에도 문화라는 말이 나온다. 순조(純祖) 3년(1803) 음력 10월 21일 동지사(冬至使) 일행은 임금께 하직 인사를 하고 연경으로 길을 떠났다. 이때 수행한 한 이름 없는 선비가 연행 왕복의 노정(路程)에서의 견문과 감회를 한시로 형식으로 쓴 책이다.

묘전(廟殿)의 비석 가운데 건륭(乾隆帝, 1711 ~ 1799, 청의 제4대 황제)의 시가 있는데, “조선인이 많이들 시를 지으니, ‘기자 홍범구주의 문화’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이다(多有朝鮮人泐句, 箕疇文化至今漸).

지금껏 우리가 쓰는 문화라는 말이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에서 온 말이라고 생각을 한 지도 모르겠다. 위의 사례들을 볼 때 문화라는 말이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간간히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문화 개념의 시원을 동·서양 중 어디냐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동양에서 그 문화의 개념은 어떻게 쓰였느냐가 궁금할 따름이다. 원래 문(文)은 ‘교차하여 그리다’라는 뜻인데 창힐이 새 발자국을 보고 두 가지 무늬를 표현했다는 말이 있다. 동양에서 ‘문화’의 사전적인 의미는 ‘문덕(文德)으로 교화하는 것’을 말한다. 문(文)이 들어간 단어들은 문학, 학문, 문양, 문필, 문인 등 대개 오늘날의 학문이나 예술과 관련이 있다.

IV. 문화 변용에 대한 문제의식

레이몬드 윌리엄스는 인문학을 ‘인도적인(humane) 것으로 정의하면서 그것은 공손하고 세련된 경향이 있는 것을 연구하는 행위로, 그리고 비인도적인(inhumane) 것은 자연적이면서 투박한 것들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 서구 역사에서 보여준 사회 연구의 시각임과 동시에 소위 서구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근대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적 시각은 이미 낭만주의 시대에서부터 생겨나 서양이 동양을 보는 관점이 고착되었다. 즉 오리엔탈리즘은 서구 제국주의와 결합하면서 서양을 세상의 중심에 두는 시각을 지배하였다. 중심이란 어디인가. 자기의 입장에서 타자를 평가하거나 자기의 관점에서 타자를 규정하는 것은 문화적 폭력이 다름 아니며, 그것은 마치 유일신의 눈으로 모든 세상을 규정하는 것과 같은 입장이다.

아마도 오늘날 로컬리티에 대한 문화적 관심이 높은 것은 기존의 중앙과 지방이라는 수직적 관계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각 지역들이 하나의 독립적인 문화권의 자율성을 이루고 수평적 관계에서 보다 역동적이고 상호 교감의 관계로 바라보자는 담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껏 제주를 이해할 때 향토, 지방, 지역이라는 세 가지 개념의 문화 분류에 의거해 입장을 정리해 왔으나 향토론과 지방론은 여전히 제주의 주도적인 문화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역론 또한 다양한 형태의 얼굴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원래 향토론은 일제강점기에 등장하여 해방 후 지방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서울 이외의 지역은 지방/시골이라는 개념의 경향론(京鄉論)으로 발전했다. 일제강

점기 때 나라를 잃은 슬픔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향토색이었는데 민족을 잃은 것에 대한 원망 대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대체한 것이 향토론이었다. 사실상 향토론은 일제강점기 토착의 정서와 닿으면서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정서를 배태하였는데 향토음식, 향토예비군, 향토문화라는 말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개념은 촌, 시골, 고향, 추억, 소박성 등의 관념을 생산한다.

향토와 지방은 경향론(京鄕論)의 중심에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향토와 지방은 문화의 주체를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에 세우는 분류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마치 서양이 동양을 규정하고 있듯이 서울을 표본으로 삼아, 그 외의 지역은 서울의 하위문화로, 혹은 비인도적인 문화로 규정되는 오리엔탈리즘의 한국적인 변종으로 보인다. 반대로 옥시덴탈리즘의 저항은 우리 몸에는 ‘우리 것이 최고’라는 신토불이 믿음과 같이 ‘주체의 남발’, 혹은 ‘주장되고 선언되는 주체’로서 시골의 삶을 합리화·이상화시키는 이론으로 발전한다.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말대로 인문학에서 말하는 시골(country)은 평화, 순수, 소박, 미덕의 관념으로 정립되고 있지만 그것의 인식적 수준은 후진성, 무지, 편협한 장소라는 시각이 여전히 강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골은 국가, 국토(land)의 일부를 의미하며, 사회 전체적일 수도 사회의 일부인 전원지역일 수도 있다. 결국 시골은 최종적으로 토지와 인간 사회의 관계의 모습을 반영하면서 점차 도시로 영입되거나 도시화의 길을 걷게 된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 분류를 생각해보면 시골과 도시의 사회문화적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과거 제주시, 서귀포시의 행정구역이 가졌던 소도시라는 이미지와 현재, 군 체계를 포괄한 새 제주시 권역에 대한 이미지는 마치 시골을 강제로 도시에 영입시킨 것처럼 보이는 것은 행정 편의를 넘어서 문화연구의 사회적 중요성을 확장시킨다.

시골에 대비되는 도시(city)는 학문, 소통, 빛(희망) 등 인간 업적의 중심적 관념으로 바쳐지며, 도시에 대한 가장 큰 이미지는 소음이 일어나고, 매우 세속적이며,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야심의 장소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도시 비판이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분명 인류 문명의 특정한 형태로써 인간 사회가 이룬 업적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제주라는 지역을 볼 때 과연 시골의 입장에서 도시를 봐야하는가. 도시의 입장에서 시골을 봐야하는가. 아니면 시골이 도시로 가는 과정, 즉 시골이 도시로 병합되는 과정으로 봐야하는가. 또는 시골과 도시가 상호작용하면서 도시가 시골의 장점, 혹은 시골이 도시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봐야하는가.

어쨌거나 시골과 도시의 관계 규정은 제주 문화를 분석하거나 제주문화의 문화적 변용을 밝혀낼 때 중요한 변수가 된다. 아마도 제주문화의 생활사적 변용을 정리할 때 시골에 대한 도시적 관점이나 도시에 대한 시골의 관점이 어느 정도 정립돼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한국사회 자본주의 구조의 이해와 그 자본주의 체제가 제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다. 사실상 근대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자본주의 출현과 진행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자본주의 사회가 성립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중문화를 가장 잘 보듬고 있는 농민과 해양민의 삶의 문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계급은 생산자라는 면에서 제주문화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사는 마을의 모습, 그곳의 생활, 의례와 같은 민중의 습속이 바로 생활문화의 지하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주문화, 혹은 제주 전통문화의 토양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과 해양민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문화(전통문화)를 머금고 있거나 보다 더 잔존하고 있는 것은 (반농반어의) 시골일 것이며, 그곳에 사는 농민과 해양민의 삶에 때문이다.

“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존속하는 것도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했던 에릭 올프의 말을 기억한다면, 문화의 모든 것을 변화에 초점을 둘 수도 있으나 다시 남아 있는 문화를 통해서 변화된 상태의 문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문화는 문화의 진행과정을 볼 수 있기보다는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변형된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골의 농민이 도시민보다 문화적 변화가 더딘 것은 그들의

직업적 속성이기도 하다. 농민이 보수적으로 보이거나 더 공동체적인 것은 시골이라는 농촌 공동체적 특징 때문일 것이다.

해양민들도 마찬가지로 농민은 생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칼로리(생계용)를 필요로 하며, 그것을 유지 온존키 위해 기계, 비료 등의 대체용 자금(재생산용)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일종의 사회질서 유지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의례비용 또한 매우 요긴하게 쓰인다.⁸⁾ 한 예로 제주의 관혼상제에 대한 부조문화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민의 이 세 가지 자금은 과거 공동체 문화에 대한 존재 방식을 일깨워준다.

개인이 공동체의 의례에 참여함으로써 그 의례가 급격히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도 한다. 전통문화가 변용되는 것은 산업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다. 자본주의 산업의 구조는 분업화된 구조화를 지향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급자족으로 해결하는 과거 농어촌 공동체와는 다르기 때문에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실용주의가 지배한다.

V. 문화 개념의 확장을 위하여

근대 자본주의가 진행되면서 한 사회의 전승되는 생활문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개념들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 부르디외의 장(場) 개념과 르페브르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개념, 아르준 아파두라이의 문화연구 방법론이 그것이다.

먼저, 부르디외는 사회적 맥락을 별개의 장(場)들로 분화된 다차원적 공간으로 정의한다. 이를 테면, 경제적 자본(물질적 기술과 부), 문화적 자본(지식, 지적 기술), 상징적 자본(학벌이나 단체대표와 같이 사회적으로 축적된 위세와 명예) 같은 것이다. 이런 장들은 위치들 간의 개관적 관계들의 결합체라고 한다. 모든 장들은 각 장마다 내적인 규칙의 논리를 갖고 있으나, 일반적인 규칙을 공유한다(앨런 스윈지우드, 2005).

즉,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장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보존전략들을 채택한다.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새로운 참여자들은 그 장의 정당성을 용인하면서도 그 장을 지배하는 무너뜨리고자 하는 전복 전략을 발전시킨다. 이는 관련가치들(게임의 정신)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결과 비판을 제한한다(부르디외, 1992).

하나의 문화적 전통이라도 이 장들(경제적 자본, 문화적 자본, 상징적 자본)과 모두 연결돼 있으므로 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민중문화냐, 지배문화냐가 구분되는 영역도 이 장의 운동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 자본주의 진행과정에서 보이는 제주 문화의 변동, 혹은 변형되고 있는 제주 문화들의 표상 또한 이 장들의 운동에 의한 문화적 맥락과 깊숙하게 닿아 있다.

주목할 만한 개념으로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이라는 문화적 개념이 있다. 그는 어쩌면 “세계의 역사도 상품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이런 저런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곧 “공간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⁹⁾. 르페브르의 말대로라면 공간에 귀속된 상품이 아니라 상품 때문에 공간이 생산되는 것이다. 잡화를 진열하던 상점은 결국 상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독립된 브랜드들의 공간을 생산한다는 논리와 같다. 결혼, 미용 등 뷰티 상품이 등장하면서 예식장과 미용실이 생산되고, 카메라와 필름이 생산되고 사진

8) 에릭 올프, 『농민(農民)』, 박현수 역, 청년사, 1973. p29.

9)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양영란 옮김, 2011. p327.

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사진관이 생기고, 주류가 다양해지면서 와인, 양주, 맥주마시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반대로 시멘트, 유리, 철강 상품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대리점과 그것으로 만든 집들이 늘어나는 대신, 초지가 경작되면서 초가는 사라지고, 목욕탕이 등장하면서 용천수 공간은 추억을 간직한 원시적 공간으로 잔존한다. 오메기술이 밀주로 취급되면서 더 이상 생산되지 않으므로 오메기 술과 관련된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새로운 상품의 지속적인 등장, 그 와중에 발생하는 자본의 운동은 점점 상품 생산과 유통의 독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독점의 결과는 다시 상점의 독점을 가져오게 되고 더욱 대형화된 공간을 생산하게 된다. 이마트를 예로 든다면, 이마트 자체 출시 상품이 점점 늘어나고 진열하는 공간이 계속 늘어나면서 식품, 의복, 공산품 등 전 제품을 직접 이마트 자체 브랜드 상품 전용 전시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제주 생활문화의 변천과정을 보는 초점으로, '상품의 생산이 곧 공간을 생산한다'는 논리를 견지하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오늘날 새로 등장하고, 또 소멸되거나 잔존하는 문화와 문화공간들은 항상 새롭게 주도적인 상품이 만들어내는 공간에 밀리게 되고, 점점 전통적인 삶의 방식은 자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에 밀려나게 되면서 생활문화의 변동 속도가 빨라진다. 결국 근대화=서구화였고, 서구화는 곧 자본주의 상품사회의 본격적 진입을 말하는 것이었다.

VI. 해방 후 제주 민속·생활문화 연구 성과

해방 후 학문적으로 제주에 처음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석주명을 거론한다. 최근 석주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고, 그를 기리는 사업들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석주명은 '조선의 생물학'을 주장하면서 국학(國學)운동을 펼쳤던 민족주의자이면서, 그의 학문적 성과물은 세계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세계주의자였다. 그리고 그는 제주지역연구의 필요성을 깨닫고, 『제주도 방언』(1947), 『제주도의 생명조사서』(1949), 『제주도관계문헌집』(1949) 등 '제주도총서'를 발간하여 제주학의 초석을 놓은 지역주의자이면서 세계평화를 위해 세계어인 에스페란토어 보급운동을 펼치면서, 에스페란토어 사전을 편찬한 세계주의자였다.¹⁰⁾

석주명은 제주도를 지독히 사랑했던 사람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보고 듣고 읽는 것 중에서 제주도(濟州島)에 관한 것이라면, 적당한 제목을 붙들어서 수시로 카드에 기록하여 쌓아두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촉탁 교수들의 제주도 연구 경향 이후 해방 후 중요한 민족적인 자존을 세우는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제주도에 관한 매우 다양한 관심을 가졌고, 그 효시가 제주학의 뿌리가 되었던 것이다. 또 1948년 김용삼 편, 『제주도 민요』 또한 제주도 문화의 가치를 알아본 시인이 펴낸 책으로, "제주민요야말로 소홀히 보면 안 될 것으로서 우리를 精神糧食의 源泉이 상기 메마르지 않은 샘 터전이 바로 제주섬이라고 보아야 되고, 다시 濟州民謠의 가치를 돌봐줘야 옳을 立場이란 걸 自覺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4·3과 한국전쟁이라는 연이은 시대적 비극은 해방 후 제주도민들의 삶을 위협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연구할 여유가 없었다.

한국전쟁 후 제주민속을 발로 뛰며 온몸으로 일군 사람은 진성기(秦聖麒)이다. 1936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서 태어난 그는 1956년에 제주대학교 국어국문과에 입학하여 1960년 졸업했다. 그는 이미 대학교 3학년 때인 1958년 3월 15일 『제주도 민요』 1집을 희망프린트사에서 프린트 판으로 출판하고 이어서 2집, 3집을 출판했다.¹¹⁾ 그는 같은 해 10월 26일 『제주도 속담』 제1집을, 이어 제2집을 제일프린트사에서

10) 윤용택외, 「학문 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학문 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2. p152.

유인판으로 발간했다. 1960년 3월 1일 졸업 직전에 『제주도 무가집』을, 졸업 후 10월 9일에 『제주도 지명의 유래집』을, 1962년 『제주도학』개관편을 출판했다. 이 시기 제주도학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했으며, 학문으로서 제주도학이라는 개념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 1964년 『남국의 신화』등 다수를 출간했고 이후 제주민속 유물을 가지고 민속박물관을 삼양에 설립하였다.

김영돈(金榮墩)은 1933년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출신으로 1960년대부터 40여 년간 국내외 해녀, 제주도 마을을 돌아보고 쓴 『한국의 해녀』는 해녀 연구의 충실한 총체적 연구서이다. 제주대 교수, 제주도문화재위원, 제주도연구회장, 민요학회 회장 등을 지내다 2001년 11월 타계했다. 저서로 『제주도 민요의 연구(상)』, 『제주의 해녀』(공저), 『제주의 민요』(공저) 1993년, 『제주민의 삶과 문화』 등이 있다.

현용준(玄容駿)은 1931년 생으로 제주대학 국문과를 졸업하고 동경대학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제주대학교수로 재직하다가 2016년 타계했다. 1976년 『제주도 신화』, 1976년 『제주도 전설』, 1980년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1986년 『제주도 무속연구』 등이 있다.

1988년 박용후의 『제주도방언연구』, 1990년 『최남의 향도 모슬포』 등이 있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센터는 전 탐라문화연구소의 후신으로 민속·생활문화 관련 연구 성과를 1982년 『탐라문화』 창간호부터 56호 까지 수록된 논문을 중심으로 그 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탐라문화』 게재 목록

<탐라문화 창간호 ~ 56호 발간까지>

분 류	논문 게재 수	비고
의생활	1	
식생활	5	
주생활	3	
민속(세시풍속, 돛통시 등)	7	
의례(상장례, 혼례, 풍수 등)	9	
돌문화(돌, 동자석, 옹기 등)	9	
민요	7	
기타(목축, 문화 등)	4	
계	45	

11) 이 프린트 판은 소위 가리방으로 굵어 만든 책으로, 1977년 7월 20일 『남국의 민요』라는 이름으로 정음문고 161번으로 재출판 된다.

의생활(1)

탐라문화 11호(1991.2.27.)

濟州島 牧子服 研究 - 金義淑

식생활(5)

탐라문화 26호(2005.2.25.)

제주도 음식의 문화콘텐츠화에 대한 일고(一考) - 주영하

제주 전통음식의 사회문화적 의미 - 허남춘

탐라문화 35호(2009.8.30.)

<특집2> 음식문화

제주지역 로컬푸드 운동의 현황과 전망 - 현혜경

제주전통음식문화의 현대적 의미 모색 -인간관계망의 회복과 관련하여- -강수경

탐라문화 48호(2015.2.)

<일반논문>

제주 지역주민의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과 외식 행태 변화 - 조문수

주생활(3)

탐라문화 28호(2006.2.28.)

제주도 '신구간(新舊間)' 풍속의 유래에 대한 고찰 - 윤용택

탐라문화 29호(2006.8.28.)

제주도 '신구간(新舊間)' 풍속에 대한 기후 변화적 이해 - 윤용택

탐라문화 30호(2007.2.28.)

'신구간' 풍속의 축제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 윤용택

민속(세시풍속, 돛통시 등)(7)

탐라문화 3호(1984.2.29.)

<第2回 耽羅文化學術會議>

濟州研究의 現況과 展望

民俗學的 側面 - 玄容駿

<調査報告>

濟州島民具 - 高光敏

탐라문화 4호(1985.1.29.)

<調査報告>

旌義고을(2) - 金榮敦

탐라문화 7호(1988.2.25.)

濟州道俗談의 主題 - 高在奂

탐라문화 9호(1989.3.21.)

곤시엄 調査報告 - 姜彰彦

탐라문화 13호(1993.2.28.)

東아시아에 있어서 濟州民俗 - 竹田坦

탐라문화 25호(2004.8.25.)

21세기에 다시 보는 제주도-dot통시 문화 - 생태적 삶의 원형과 그 현대적 변형을 찾아서 -
윤용택

의례(상장례, 혼례, 풍수 등)(9)

탐라문화 13호(1993.2.28.)

濟州島 神話와 儀禮形式에서 본 문화의 系統 - 玄容駿

탐라문화 17호(1997.)

<特輯> 濟州의 社會와 文化

濟州島 喪·祭禮의 節次와 信仰의 義味 - 현승환

탐라문화 22호(2002.2.28.)

<특집> 풍수지리와 장묘문화

The Significance of Jeju Island Feng-Shui - D.J.Nemeth

風水地理研究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一考 - 송성대

韓國의 裨補風水에 대한 始論 - 최원석

일본 장묘문화 - 그 다양성과 역사성 - 高村龍平

제주도 풍수설화의 이해 - 현승환

탐라문화 24호(2004.2.25.)

제주문화 속의 오름 - 자연풍수관을 중심으로 - 신영대

탐라문화 35호(2009.8.30.)

<일반논문>

제주도 농촌사회 상례문화의 특징과 변화 연구 - 표선면 지역을 중심으로 - 정희종

돌문화(돌, 동자석, 옹기)(9)

탐라문화 10호(1990.2.10.)

濟州島 童子石 研究 - 姜彰彦

탐라문화 23호(2003.2.25.)

제주도 전통 사회의 용기 생산과 유통에 관한 연구 -대정읍 구억리를 중심으로-
- 송성대·오영심

탐라문화 27호(2005.8.30.)

돌하르방과의 비교를 통한 동자석의 가치 제고와 동자석의 지물을 통한 설치의 동기 분석 - 김영익·김민철

탐라문화 31호(2007.8.28.)

돌하르방 북방·남방 기원설에 대한 재론 - 김유정

탐라문화 33호(2008.8.230.)

<일반논문>

翁仲石: 돌하르방에 대한 고찰 - 김정선

제주문화상징물의 가치와 문화콘텐츠화 방안 -돌문화를 중심으로- - 강연실

탐라문화 37호(2010.8.30.)

<일반논문>

제주도 용기가마의 구조와 그 연원 - 김정선

탐라문화 42호(2013.2.)

<일반논문>

돌하르방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 부정민

탐라문화 50호(2015.10.)

<일반논문>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과 전개 - 정성권

민요(7)

탐라문화 5호(1986.5.25.)

濟州 자장가의 類型 - 尹致富

탐라문화 6호(1987.2.25.)

濟州民謠에 投影된 島民意識 分析 -濟州島民性과 意識構造 形成背景- - 姜昌赫

탐라문화 9호(1989.2.15.)

濟州島 성주풀이의 構成 및 長短의 研究 - 金恩子

탐라문화 11호(1991.2.27.)

濟州島 민요의 敍述體 構成에 관한 고찰 - 左惠景

탐라문화 12호(1992.2.28.)

濟州島民謠의 傳承變異에 관한 考察 - 左惠景

탐라문화 20호(1999.12.30.)

제주도 잠수(潛嫂)들의 생활과 민요 - 韓昌勳

탐라문화 28호(2006.2.28.)

제주민요에 나타난 삶의 대응방식과 생활인식 - 양영자

기타(목축, 문화 등)(4)

탐라문화 4호(1985.1.29.)

先進地 彫刻美術 研究 - 文其善

탐라문화 18호(1997.12.23.)

제주의 무신도(巫神圖) - 김유정

탐라문화 36호(2010.2.28.)

<일반논문>

제주도 효제문자도 연구 - 전은자

탐라문화 43호(2013.6.)

<일반논문>

근현대 한라산 상산방목의 목축민속과 소멸 - 강만익

제주도연구회(현, 제주학회)는 1978년 창립되었고 1984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발행된 2017년 2월『제주도 연구』제47집이 발행되었다.

2. 『제주도연구』 민속·생활문화 논문 게재 목록

<『濟州島研究』 제1집(1984) ~ 제46집(2015) 발간>

분 류	논문 게재 수	비고
의생활	4	
식생활	7	
주생활	11	
민속(세시풍속, 돛통시 등)	2	
의례(상장례, 혼례, 풍수 등)	8	

돌문화(돌, 동자석, 옹기 등)	1	
민요	3	
기타(목축, 문화 등)	10	
계	46	

의생활(4)

濟州島研究 제1집(1984년 12월)

<연구논문>

濟州島民의 호상옷과 來世觀 - 高富子

濟州島研究 제2집(1985년 12월)

<특집: 濟州島의 保存과 開發>

濟州島民의 喪禮에 나타난 服飾: 호상옷과 喪服 - 高富子

濟州島研究 제19집(2001년 6월)

<특집>

갈옷연구 - 이해선

濟州島研究 제26집(2004년 12월)

제주지역 문화상품 ‘갈옷’ 패션이미지와 ‘갈옷’ 구매행동: 제주지역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 홍희숙

식생활(7)

濟州島研究 제22집(2002년 12월)

<기타논문>

제주 전통두부 ‘똥비’의 제조방법 - 오영주

濟州島研究 제23집(2003년 6월)

<특집 I: 제주도의 장수 현황>

제주지역 장수노인의 식생활 특성 - 고양숙

濟州島研究 제29집(2006년 6월)

제주 전통혼례와 음식문화에 관한 민속지적 묘사 - 오영주

濟州島研究 제32집(2009년 8월)

동아시아 속의 제주 발효음식문화 - 오영주

濟州島研究 제37집(2012년 2월)

<연구논문>

제주음식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향후 연구 과제 - 주영하

濟州島研究 제39집(2013년 2월)

<연구논문>

생물다양성과 지역먹을거리운동 - 현혜경

濟州島研究 제43집(2015년 2월)

<연구논문>

생활문화로 본 제주 분식문화(粉食文化) - 오영주

주생활(11)

濟州島研究 제4집(1987년 12월)

<특집: 濟州연구의 오늘과 내일>

제주도 聚落研究의 動向과 課題 - 오홍철

濟州島研究 제5집(1988년 12월)

<연구논문>

濟州島草家の 比例構成에 관한 研究 - 신석하

濟州島研究 제9집(1992년 12월)

<특집: 濟州島의 人文環境과 自然環境>

문학 작품 속에 비친 제주인의 삶과 환경 - 金永和

濟州島의 社會文化的 特性和 環境: 挑戰·適應·超越의 메카니즘 - 李昌基

제주사람들의 사회와 섬에 대한 관념: 인구이동과 제주사회 - 유철인

濟州島研究 제10집(1993년 12월)

<연구논문>

濟州島의 風土住家 - 송성대

우도 어촌의 성립과 변천과정 - 강만익

濟州島研究 제18집(2000년 12월)

<연구논문>

4·3과 중산간 마을의 거주공간 변모: 남제주군 안덕면 무등이왓을 사례로 - 김지수

濟州島研究 제19집(2001년 6월)

<특집>

제주사회의 변동에 따른 주택특징에 관한 연구: 1945년부터 1960년대 주택을 중심으로 - 김태일·김호선·박철민

濟州島研究 제29집(2006년 6월)

제주도의 전통촌락과 새로운 문화관광마을 개발에 관한 소고 - 이기환

濟州島研究 제38집(2012년 8월)

<연구논문>

제주 초가(草家)의 외형적 특징 연구 - 한상희

濟州島研究 제43집(2015년 2월)

<연구논문>

근대시기 제주도 주거의 성격 - 김석윤

민속(세시풍속, 돛통시 등)(2)

濟州島研究 제2집(1985년 12월)

<특집: 濟州島の 保存과 開發>

濟州島の 民俗文化의 保存과 開發方向 - 玄容駿

濟州島研究 제17집(2000년 6월)

<연구논문>

입춘굿 탈놀이의 전승과 과제 - 심규호

의례(상장례, 혼례, 풍수 등)(8)

濟州島研究 제2집(1985년 12월)

<특집: 濟州島の 保存과 開發>

濟州의 婚俗 - 朴垚洵

濟州島研究 제3집(1986년 12월)

<특집: 濟州島史의 再照明>

濟州의 風葬說에 대한 論意 - 金奉玉

濟州島研究 제5집(1988년 12월)

<특집: 國際化時代의 濟州島研究>

재일 제주인의 의례생활과 사회조직 - 李文雄

濟州島研究 제14집(1997년 12월)

<연구논문>

19세기말 제주도 농촌마을의 혼인양상: 1897년 덕수리 호적중초를 중심으로 - 이창기

濟州島研究 제16집(1999년 12월)

<연구논문>

제주 농촌마을의 기제사의례 변화 - 현혜경

濟州島研究 제18집(2000년 12월)

<연구논문>

의례, 공연, 그리고 연대의 문제: 50주년 4·3도민해월상생굿을 중심으로 - 현혜경

濟州島研究 제20집(2001년 12월)

<연구논문>

제주도 장묘문화: 서귀포시 예래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 다카무리 료헤이

濟州島研究 제32집(2009년 8월)

입도조(入島祖) 묘역에 나타난 제주의 형기론(形氣論) 풍수지리(風水地理) - 신영대

돌문화(돌, 동자석, 옹기)(1)

濟州島研究 제44집(2015년 8월)

<연구논문>

제주동자석(濟州童子石)의 헤어디자인 연구 - 김춘일

민요(3)

濟州島研究 제2집(1985년 12월)

<특집: 濟州島의 保存과 開發>

濟州의 傳承遊戱謠 - 左惠景

濟州島研究 제22집(2002년 12월)

<제주도 민요 논문>

濟州島 民謠 연구의 成果와 課題 - 변성구

제주 민요의 표현 특질 考 - 양영자

기타(목축, 문화 등)(10)

濟州島研究 제13집(1996년 12월)

<연구논문>

제주도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 전경수·한상복

제주조랑말 - 康珉秀

濟州島研究 제28집(2005년 12월)

제주 말(馬)과 관련 민속에 관한 연구 - 김동섭

제주습속 중의 몽골적인 요소: 조랑말의 뜻과 제주방언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박원길

濟州島研究 제39집(2013년 2월)

<연구논문>

성읍민속마을의 전통과 무형유산의 보존 방향 - 좌혜경

제주 바람(風)의 다면적(多面的) 특성과 정책 활성화 방안 - 정학주·황경수

濟州島研究 제42집(2014년 8월)

<연구논문>

제주다움에 비춰본 영주십경 - 윤용택

제주의 민속 문화와 마을 만들기 - 허남춘·강소진

<보고서>

제주 생활문화 의식과 정체성 조사 보고서 - 윤용택

濟州島研究 제43집(2015년 2월)

<연구논문>

제주도민의 정체성과 생활문화 의식 - 윤용택

3. 제주대학교 도서관 분류 목록에 나온 민속·생활문화 관련 연구서

<제주대학교 도서관 소장 단행본>

분 류	단행본	논문	비고
의생활	7	2	
식생활	22		
주생활	6		
민속(세시풍속, 돛통시 등)	24		
의례(상장례, 혼례, 풍수 등)	4		
돌문화(돌, 동자석, 옹기 등)	6	3	
민요	3		
기타(목축, 문화 등)	4		
계	76	5	

의생활(9)

박순자, 『갈옷』, 경춘사, 2001, p112.

제주도농촌진흥원, 『제주갈옷』, 1994, p35.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의 복식(The dress and its ornaments of Jeju)』, 2010, p176.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 地方 衣生活 篇』, 1986, p336~471.
 고부자, 「濟州道 服飾의 民俗學的 研究」, 梨花女大, 1971, p117.
 현혜경, 『濟州道 服飾에 關한 研究: 海女服과 農民服(갈옷)의 實物을 中心』, 수도여자사범대학대학원, 1976, p107.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제주해녀 옷 이야기: 해녀박물관 조사보고서』, 2012, p93.
 김동섭, 『제주 ‘낭신’ 이해』, MC디자인연구센터, 2011, p103.
 허복구·박지혜 『근대 제주도의 감 문화와 감물 염색』, 광주: 세오와 이재, 2013, p172.

식생활(22)

현혜경, 『제주 먹을거리 풍경』, 학고방, 2013, p191.
 문순덕, 『섬사람들의 음식 연구』, 學古房, 2010, p348.
 장수경, 『濟州島の 食生活 및 衛生實態 調査研究』, 濟州大學校家政學科, 1977, p45.
 제주도농촌진흥원, 『(오랫동안 전하여 온 맛과 멋) 제주전통음식』, 1995, p229.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濟州道の 食生活: 食生活調査 報告書』, 1995, p469.
 제주도농촌진흥원, 『(오랫동안 전하여 온 맛과 멋) 제주전통음식』, 1993, p218.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전통) 음식=Jeju traditional food』, 2007, p181.
 진성기, 『南國의 鄉土飲食: 濟州島 鄉土飲食』, 濟州民俗研究所, 1987, p201.
 허남춘, 『제주의 음식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7, p221.
 장수경, 『濟州島の 食生活 및 衛生實態 調査研究』, 濟州大學校家政學科, 1977, p45.
 제주도농촌진흥원, 『(오랫동안 전하여 온 맛과 멋) 제주전통음식』, 1995, p229.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濟州道の 食生活: 食生活調査 報告書』, 1995, p469.
 제주도농촌진흥원, 『(오랫동안 전하여 온 맛과 멋) 제주전통음식』, 1993, p218.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전통) 음식=Jeju traditional food』, 2007, p181.
 진성기, 『南國의 鄉土飲食: 濟州島 鄉土飲食』, 濟州民俗研究所, 1987, p201.
 김지순, 『제주도 음식문화』, 제주: 제주문화, 2001, p232.
 오영주, 『제주음식문화의 이해: 제주향토음식 이론 및 실습교재용』, 제주: 제주한라대학, 2007, p349.
 이상아, 『제주지역의 향토음식과 식생활용구에 관한 연구』, 서울: 세종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조리전공, 19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인의 지혜의 맛)전통 향토음식』, 제주특별자치도, 2012, p409.
 허남춘·허영선·강수경, 『할망하르방이 들려주는 제주음식이야기』, 이야기섬, 2015, p280.
 허남춘, 『제주의 음식이야기: बे지근한 구슬로 풀어내는 제주 전통 음식 20』, 제주: 이야기섬, 2015, p28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제주의 전통 음식문화를 찾아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p71.

주생활(6)

윤용택, 『제주도 신구간 풍속 연구』,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p269.
 박순자, 『갈옷』, 경춘사, 2001, p112.
 제주도농촌진흥원, 『제주갈옷』, 1994, p35.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의 복식(The dress and its ornaments of Jeju)』, 2010, p176.
 제주학회, 『제주인의 생활문화와 환경: 제주학회 창립21주년 기념 제15차 전국학술대회』, 제주학회, 1999.

p516.

현혜경, 『濟州道 服飾에 關한 研究: 海女服과 農民服(갈옷)의 實物을 中心』, 수도여자사범대학대학원, 1976, p107.

민속(세시풍속, 돛통시 등)(24)

고광민, 『섬 사람들의 삶과 도구』, 민속원, 2013, p172.

한국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第5冊, 濟州道 編, 민속원, 2013, p172.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주도) 세시풍속』, 2001, p265.

김동섭, 『제주민속문화의 이해』, 거마문화, 2010, p174.

김순자, 『와치와 바치』, 각, 200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동아시아 속의 제주민속』, 2007, p163.

윤용택, 『제주도 신구간 풍속 연구』,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p269.

濟州市,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濟州市의 鄉土民俗』, 1992, p256.

진성기, 『柑橘의 香氣: 濟州島民俗考』, 濟州島民俗文化研究所, 1996.

진성기, 『제주의 세시풍속』, 디딤돌, 2010, p422.

진성기, 『濟州民俗의 멋』, 悅話堂, 1979.

濟州民俗文化研究會, 『濟州民俗文化』, 濟州民俗文化研究會, 1980.

한국문화연합회 제주도지회, 『제주도 접(接)계(契) 문화 조사 보고서』, 2010, p391.

정광중, 『하도리 민속지』, 국립민속박물관, 2007, p364.

고광민, 『섬 사람들의 삶과 도구』, 민속원, 2013, p172.

제주시, 『갓일』, 민속원, 2000, p129.

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 『濟州道 民俗資料』, 濟州道, 1987, p249.

제주도 제주시교육청, 『(우리고장의) 민속놀이』, 1991, p1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민속사전』, 민속원, 2012, p448.

제주도교육연구원, 『옛 濟州의 民俗·歲時風俗·民謠』, 濟州道教育研究院, 1984, p198.

진성기, 『제주민속의 아름다움: 그 오묘한 빛과 향기』, 제주민속연구소, 2003, p388.

진성기, 『(제주민속박물관 반세기 발자취)이 길을 이겨야 하는 물결 센 파도소리: 제주민속 연구 53주년』, 제주: 디딤돌, 2011, p6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민속사전』,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회, 2012, p448.

의례(상장례, 혼례, 풍수 등)(4)

김순자, 「“좀 친 호상 입으믄 소지대에 좀 친다”: 구술로 풀아낸 제주의 장례 이야기」(제주문화 알아보기),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제주, 1997, pp.111-118.

김영돈, 『濟州民의 通過儀禮』, 濟州道, 1993.

김유정, 『제주의 무덤』, 국립민속박물관, 2007, p161.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전통상례문화』, 1998, p67.

돌문화(돌, 동자석, 옹기 등)(6)(3)

김유정, 「제주 돌문화의 경관지대 드르팓의 이해」(서귀포문화원 제10호), 서귀포문화원, 2017, pp.106-122.

김유정, 『제주 돌담-빛깔있는 책들 280』, 서울: 대원사, 2015, p150.
 김유정, 『제주의 돌문화』, 제주: 서귀포문화원, 2012, p357.
 김유정,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 제주: 파피루스, 2003, p237.
 김유정, 『제주 풍토와 무덤』, 제주: 서귀포문화원, 2011, p327.
 김유정, 『제주산담』, 제주: 서귀포문화원, 2015, p322.
 김동수, 『제주도(제주도) 동자석(동자석) 연구 -풍토미학의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예
 술학 석사논문, 2012.
 오창윤, 『제주돌가마(石窯)의 축조(築造)에 관한 연구-제주 돌가마연구소의 돌가마(石窯)의 축조(築造)를 중
 심으로』, 한국도자학회, 2009, pp. 124~142.
 이윤형·고광민, 『제주의 돌문화』, 제주: 제주돌문화공원, 2006, p247.
 김유정, 『제주 해양 문화 읽기: 돌, 바람, 여자, 가뭄, 말 그리고 신화의 섬』, 서울: 가람과 뒀, 2017,
 p416.

민요(3)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이여이여 이여도 사나: 제주해녀 노래집』, 민속원, 2010, p288.
 조영배, 『제주민요의 이해』, (제주문화자료총서7), 제주도, 2000, p315.
 양영자,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 (탐라문화학술총서6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p384.

기타(목축, 문화 등)(4)

김영돈, 『제주민의 삶과 문화』, 도서출판 제주문화, 제주도, 1993, p315.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2009, p391.
 전경수, 『탐라-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2010, p216.
 김동전·강만익, 『제주지역 목장사와 목축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5, p378.

4. 민속·생활문화 종합 목록 조사표

분 류	탐라문 화	제주도 연구	제주대학교 도서관 소장도서		계		비고
	논문	논문	단행본	논문	논문	단행본	
의생활	1	4	7	2	7	7	
식생활	5	7	22		12	22	
주생활	3	11	6		14	6	
민속 (세시풍속, 돛통시 등)	7	2	24		9	24	

의례 (상장례, 혼례, 풍수 등)	9	8	4		17	4	
돌문화 (돌, 동자석, 옹기 등)	9	1	6	3	13	6	
민요	7	3	3		10	3	
기타 (목축, 문화 등)	4	10	4		14	4	
계	45	46	76	5	96	76	

VII. 해방 후 민속에서 생활문화로의 민속 개념 이동

해방 후 민속·생활문화 관련 『탐라문화』에 수록된 논문은 총 45편으로 제주민속이 9편, 돌문화 관련이 9편으로 가장 많고, 의생활이 1편으로 가장 적다. 『제주도연구』에서는 주생활, 목축, 문화일반이 10편으로 많고, 돌문화가 1편으로 가장 적다. 『제주대학교 도서관 소장도서와 논문』으로는 단행본 중 식생활 관련이 22편으로 가장 많고, 민요가 3편으로 가장 적다. 또 논문인 경우, 모두 5편으로 돌문화가 3편, 의생활이 2편이 있다. 기본 표본으로 삼은 『탐라문화』, 『제주도연구』, 『제주대학교 도서관 소장 도서와 논문』의 민속·생활문화 관련 성과를 종합해보면, 단행본, 76권, 논문 96편이 된다.

물론 이외에도 이 표본 범주를 벗어난 민속·생활문화 연구 성과들은 많을 것이다. 개인 연구자, 타 전공 연구자, 향토사학자, 이주민, 육지학자, 외국인 등 주제, 방법, 콘텐츠의 접근방식도 매우 다양할 것이다. 원래 민속, 혹은 생활문화란 것의 절대적 소유자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 일반 대중과 괴리를 가져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삶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노병사의 전 분야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에서 예수까지를 두 아우를 수 있는 오너가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새밭의 피에 해당하는 시간과 능력이 딸린 연구로 전체 제주도 민속과 생활문화를 아우르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적어도 눈에 띄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분명 시대는 변했고, 변해가는 것이 필연이며, 그것이 공간의 변동을 주는 시간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속연구자 1세대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자주적 민속 연구의 불모지였던 제주도에 제주학의 맹아를 보게 되는 행운(?)이 있었고, 또 그들 연구자들의 연구성과의 특징은 제주도 문화의 원형(原形)을 발굴했다는 역사적 사실들이 소중했다. 또 1952년 2년제 제주초급대학(4학과)으로 설립되어 1955년에 도립 4년제 대학교로 승격되면서 제주대학에 국어국문과가 설치된 것은 제주도의 신화, 설화, 민요 등 구비전승은 물론 세시의례, 통과의례, 잡녀 연구 등의 학문적 성과를 승계할 수 있었다.

민속연구자들의 제2세대들은 제1세대 연구자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민속·생활문화의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1990년 대 부터는 민속·생활문화의 산업적 연계성 콘텐츠로의 진출이 넓어지면서 민속이라는 용어보다는 자본주의 현실을 인식한 생활문화나 생활사라는 개념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보인다. 이와 함께 2000년 이후 제주도가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 공원 인증이라는 세계인의 관심을 받으면 단행본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서점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제주도 여행지의 폭발적인 증가다. 단연 이것의 저변에는 그간 제주도 민속연구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지만 다문화 사회,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제주문화에 대한 관심 또한 대중적이 되고 있다.

한때 민속을 낡은 것, 고리타분한 것으로 인식하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시대, 곧 심화된 자본주의 시대의 민속의 다른 말인 생활문화가 자리를 잡았다. 생활문화 이론의 밑바탕이 된 자본주의 시민이자 상품생산이자 소비자로서의 일상에 지배받는 개념으로의 진화는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화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민속·생활문화의 최종 목적지로 나타나는 것은 음식문화와 예술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제주학 연구들은 앞으로 본격적인 세계화의 기본 과제를 안고 있는데 예술인 문학, 회화, 조각, 음악, 연극, 영화 등으로 제주학의 기본 모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늘 제기되는 사회과학, 자연과학과의 통섭적 결합은 예술학과 더불어 21세기 제주학을 철학과 사상의 정립 위에, 지구화의 요망진 지역으로서 세계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 가능성은 제주학이니까 가능할 것이다.

Ⅷ. 맺는 말

“21세기를 만들어갈 당신들에게 우리는 애정을 다해 말한다. ‘창조, 그것은 저항이며, 저항, 그것은 창조다.’ ‘우리가 몸 담고 사는 사회가 자랑스러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원칙과 가치들을 다 같이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분노의 동기를 갖기를 바란다. 이걸 소중한 일이다. 내가 나치즘에 분노했듯이.’ 이 말은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운동의 노(老)투사 스테판 에셀(Stéphane Hessel, 1917~)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지난 세월 마음에 품었던 말이다. 그가 1917년에 태어났으니-2011년 93살. 현재 살아 계시다면 101살이 된다-한 세기를 다 살아온 셈이다.

지금 여기서 우리의 담론이 된 제주학을 생각하며 그의 말을 꺼내는 것은 지난 세월을 이야기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쟁점이 많겠지만 “제주학은 ‘저항정신의 학문적 틀’을 세워야 한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제주학의 이념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학문의 이념적 주체가 흔들리게 되면 제주학은 그저 그런 거주 공간에 편승하여 만들어진 또 하나의 이익 집단의 학문이 돼버린다. 조직은 그 구성원이 서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 그러나 버트란트 러셀이 말대로, 조직(organization)은 나름의 생명을 가지며, 한 개인의 삶의 단계와 비슷하게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쳐 가기 마련이지만, 조직의 필요성이 단지 자신을 위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하려면 남을 위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오로지 ‘내’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남을 위해서도 저항정신이 있어야 한다. 그 저항이 어떤 형태일지라도 저항은 하나의 운동이며, 운동이 있어야 생존의 자주성이 확보된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사람이 고루(古壘)하게 되는 것처럼 조직도 연륜이 있어도 성장과 확장이 멈추게 된다.

앞서 학문의 본질에 대해 비록 과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항정신’에 방점을 찍는 것은, 마치 학문도 생명에 빗댈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의 동력은 저항이기 때문이다. 생활세계는 저항이 일상이다. 마치 피부 속 세포처럼 몸에 들어오는 균을 막아내는 것, 학문도 예외는 아니다. 병서(兵書)처럼 드릴지 모르지만 방어나 공격 또한 본질적으로 저항에서 비롯된다. 이런 점에서 학문은 현실 순응이 아니라 처절한 선택적 대의(大義)로서 그 고유성(固有性)을 유지(維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학문은 현실에서 얻어낸 저항정신의 결과가 인지되어야 한다. 그 어떤 노력도 옛 어른들의 말처럼 “부지런한 공(功)은 싣나(있다).” 우리의 저항은 학문적으로 자신을 위해서도, 공공을 위해서도 궁극적으로는 민본(民本)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조선의 역사에서 맹자(孟子)의 민본사상(民本思想)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것은 그 사상이 무소불위의 왕권마저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민본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근원적인 저항정신이고 제주학의 본질이 돼야 하는 것이다.

역사란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만든다. 그것은 건강한 사고(思考)와 침착한 판단을 갖는 것을 도와주며

현재의 일상의 일들을 역사적 배경 속에서 바라보게 하는 힘을 준다. 느슨해져가는 우리들에게 성찰의 빛 되돌려주는 반면거울이 된다. 제주학이 저항의 학문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학이기 때문이고, 아이덴티티의 근본 문제이고 지구의 한 지역이자 일원이 때문이다. 제주는 4·3민중항쟁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자력(自力)이 없는 사회가 돼 버렸고, 자본주의가 심화된 지금 탐라라는 이름의 정신적 자주성마저 아득히 전설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최영장군을 아예 민초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렸고, 이형상을 영천의 깡패라 불렀던 자존심이 있었다. 이재수 장두(狀頭)의 기백과 일제강점기 여성 최초의 잡녀 항일투쟁, 4·3 민중항쟁 등의 정신의 토대는 바로 탐라에서 흘러온 오래된 전통, 곧 자주성이었다. 탐라의 정신의 자주성이 바로 제주학의 사상적 바탕이 돼야함은 물론이다.